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i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르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 독서 열왕기 하권 5,14-17
화답송 시편 98(97),1,2-3. 7-13. 34-4 (◎ 2 참조)

Musical notation for the hymn: (후렴) 주님은 당신 구원 - 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의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제2 독서 2티모 2,8-13
복음 환호송 1 테살 5, 18

-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17,11-19
- 성가 입당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봉헌 215번 영원하신 성부
 성체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파견 436번 주날개 밑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강 혜숙 프란체스카 강 견대 마리아 김 정수 베드로 박 현진 스테파노 조 태연 안토니오 김 영우 요셉, 강견대 마리아 부부 이 정진 Antonio	이 기원 스테파노 이 영혜 안젤라 김 민경 소화테레사 김 보나 신 은정 베로니카 김 지영 유스티나 선 명희 노아
생미사	봉헌
유 정옥 유스티나 이 주윤 카타리나 영육건강 이 정주 소화테레사 감사 편 윤아 루시아 가정 감사 이 영애 레지나 안 선정 마리안나 회복 박 기목 알버트, 박 민재 아그네스	이 남석 베드로 하늘처럼 성가대 익명 김 명희 글라라 한 동훈 울드레아 한 서희 테레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0월9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이영혜 안젤라	한서희 테레사	한서희 테레사
10월16일	이영노 율리안나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조소연 마르티나	조소연 마르티나	김중선 비비안나	한서희 테레사	김민규 요셉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 대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 받고자 하는 분들
- 첫모임 : 10월 23일(일) 오전 10:30 Korean Conf.Rm
- 교리시작 : 10월 26일(수) 오후 7시 Korean Conf.Rm
- 세례성사 예정일: 2023년 부활절
- 문의 : 2층 사무실 347.834.5784

견진성사 교리반 모집

- 대상 : 2019년 이전 세례받은 신자
- 첫모임 : 10월 23일(일) 오전 10:30 Korean Conf.Rm
- 견진성사 예정일: 2022년 성탄절
- 문의 : 2층 사무실 347.834.5784

미사 후 친교

- 일시 : 10월 16일 (일)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연령회 모임

- 일시 : 10월 9일(오늘) 미사후, 아랫 성당
- 지향 : 강 마리아, 이 창희 필립보

묵주기도 모임

- 일시 : 10월 15일(토) 낮 12시
- 지향 : 아메리카의 변화, · 장소 : 록펠러센터 앞, 5thAve

미 동북부 혼성 제2차 꾸르실료 교육

- 일시 : 2022년 11월 3일(목) ~ 11월 6일(일)
- 장소 : 뉴저지 St. Paul John II Retreat Center
- 대상 : 세례받은지 2년 이상 된 신자로 본당 신부님 추천 필요
- 신청 : 본당 울뜨레아 간사, 10월 25일(화)까지

청년성서모임 2022년 가을학기 그룹원 모집

- 대상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은 청년
- 모집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모임장소 : 다미아노 홀(예정), 신청마감: 10월 29일(토)
- 개강미사 : 11월 12일(토) 오후 6시
- 문의 : 대표봉사자 김 야고보 201.912.7577
- 신청링크 : <https://forms.gle/iqP4g7iRn7eGgXfe9>

'하늘처럼' 성가대 단원 모집

- 하느님 마음에 드는 성가를 함께 노래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성가는 두 배의 기도입니다.' St.Agustine
- 문의 : 노 데레사 917-692-6447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묵주기도 성월 기도

◆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니다.
하느님,
외 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함께 이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단체모임 안내

울프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D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아랫성당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6pm~7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8:30am~1:30pm	교육관 3B
예비신자 교리반	매주 수요일 7pm	Korean Conf.
세례 견진 교리반	미 정	Korean Conf.
구세주의 모후 Pr.	매주일 8:00 am ~	교육관 1B
우리 즐거움의 원천 Pr.	매주일 10:30 am ~	교육관 2D

2022년 10월 교황님 기도지향

'모든이에게 열린 교회'

언제나 복음에 충실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연대와 형제애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공동 합의를 실천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5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경희 (미카엘라)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출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믿음의 크기와 찬양의 크기는 비례한다"

루카 17,11-19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병환자 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전례에 절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전례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기쁘게 찬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르코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다가 먼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의 장사꾼들을 모두 쫓아내신 다음, 다시 돌아오는 길에 무화과나무가 바싹 말라 죽어버린 것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단의 구조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을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형식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이 없는 전례는 결국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처럼 말라버릴 것이란 예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말씀도 바로 참다운 예배는 어때야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다면 받은 것에 감사해서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사는 이전부터 ‘에우카리스티아’, 즉 ‘감사’로 불렸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구원되었다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감사의 찬미가 우러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창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병이 치유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치유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찬미소리가 저 사마리아인보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례한 미사 중 가장 길었던 것은 6시간입니다. 피정 때였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6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 찬미를 하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보았고 평화의 인사를 하며 함께 미사에 참례한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느꼈습니다. 그 가슴 뜨거움은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뜨거운 찬양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 큰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한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례가 과연 구원받은 기쁨에 성당이 떠나가라 찬양하고 춤을 추는 시간인지, 아니면 의무이기 때문에 참아내야 하는 무엇인지 되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전삼용 요셉신부